



임실 신평면 행복나눔협의회, 빵 나눔 사랑 나눔

신평면 행복나눔협의회(공공위원장 염진선, 민간위원장 손완진)가 지난 25일 협의회 위원들이 직접 만든 빵을 신평면 관내 독거노인 30세대에 전달했다. 협의회 위원 및 자원봉사자 10여 명은 임실군자원봉사종합센터(센터장 김민숙)의 도움을 받아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직접 빵을 만든 후 각 마을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전달했다. 신평면 행복나눔협의회 위원들은 외롭고 홀로 사는 독거노인에게 빵을 만들어 직접 전달과 함께 안부 확인을 하는 등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임실=진종영 기자



남원소방서, 신규임용자 실무 교육훈련

남원소방서(서장 소재실)는 오는 11월 2일까지 소방공무원 신규임용자 3명을 대상으로 소방관서 실습을 진행한다고 26일 전했다. 이번 실습은 현장에서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강하고 당당한 소방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해 화재·구조·구급·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장적응 능력과 업무수행 능력을 배양하게 된다. 교육생들은 작년에 소방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후 소방학교에서 교육 중인 화재진압대원과 구조대원이며, △로프를 활용한 구조 훈련 △관찰보조, 수관 전개·수거, 진화장리 등 다양한 교육과정에 참여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소방서, 심혈관질환 심폐소생술 중요성 강조

남원소방서(서장 소재실)가 환절기에는 순환기계 질환 사망과 급성심정지 발생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환절기에는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날씨에 혈관이 수축하고 관상동맥 내경이 좁아 급성심근경색의 발생빈도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심폐소생술 요령을 익혀두면 예고 없이 찾아오는 심정지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다. 심폐소생술은 크게 3단계로 구분되며 △1단계: 10초 이내로 환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의식과 호흡 확인 △2단계: 119에 신고 후, 자동제세동기를 요청 △3단계: 환자 가슴 정중앙(복잡뼈의 아래쪽 1/2)에 손끝을 올리고 나머지 손을 겹쳐 손가락을 깎 뒤 5~6cm, 분당 100~120회 속도로 압박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동학농민혁명 유족한마당 개최

유족 등록 통지서 전달식·전통놀이 공연 등 소통·화합 시간 가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사장 신순철, 이하 기념재단)은 10월 25일부터 26일까지 전국의 동학농민혁명 유족이 함께 어울리는 유족한마당 행사를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동학농민혁명 유족에 대한 예우와 함께 유족으로서 자긍심을 드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첫날 황토현을 찾은 유족들은 동학농민혁명박물관 관람을 시작으로 전통 탈춤과 줄타기가 어우러진 전통놀이 공연으로 흥을 돋우었다. 이후 유족들은 전통주와 반려화분을 만드는 이색 체험 기회를 가져보기도 하였다. 저녁에는 미술 토크쇼 관람 후, 유족의 밤 행사를 통해 지역을 뛰어넘어 유족 간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행사 일환으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 등록 통지서 전달식이 함께 진행되었다. 정부는 2004년 특별법을 제정하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 등록을 시작하였고, 2018년부터는 기념재단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10월 13일 개최한 제17차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에서 새로이 동학농민혁명 유족으로 인정된 208명 중 32명이 이날 신



순철 위원장(기념재단 이사장)으로부터 유족 등록 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았다. 이로써 현재까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3,785명, 유족 1만3,175명이 인정되었다.

유족한마당 행사를 위해 기념공원에 처음 방문했다는 한 유족은 "박물관 전시를 둘러보며 동학농민혁명이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시작이었다는 사실을 배우며 오랫동안 쉬쉬했던 할아버지의 활동이 너무나 자랑스럽게 느껴지는 순간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유족한마당 행사는 이튿날 전통주 고택, 만석보 터, 피향정 등 유적지 답사를 통해 동학농민혁명의 현장을 찾아보는 일정으로 마무리했다. /정을=김대환 기자



순창 순화파출소, 농촌 맞춤형 보이스포싱 예방 홍보

순창경찰서(서장 권미자) 순화파출소는 지난 24일 개인택시 휴게실을 방문 보이스포싱 등으로부터 취약한 농촌 노인 맞춤형 범죄예방 홍보를 펼쳤다.

최근 순창 지역은 고령화로 65세 이상의 노인층이 전국 평균을 웃돌아 그에 따른 보이스포싱 등 지능범죄로부터 쉽게 표적이 되는 사회문제를 가지고 있다.

시례로 시골 마을을 방문하여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상대로 휴대전화, TV 등 무료 수리서비스를 제공하며 휴대전화에 물품 매각 대금을 결제하게 하는 대면편취형 수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취약한 지역을 공략하고 있다.

이에 순화파출소(소장 주순태)는 "시골 곳곳에 노인층의 접근성이 가장 활발한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택시 호출 전화 발신시 보이스포싱 예방 CM송이 흘러나오게 음원 파일 설치와 정부기관 사칭 등 5가지 사기유형별 방법 등을 안내하여 승객이 금융기관 방문시 범죄 피해를 1차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지속적인 홍보로 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왕원 기자

장수군 장계면·함양군 서상면, 동서화합 한마당 행사 성료

장수군 장계면은 26일 자매결연지인 함양군 서상면과 장계 육십령휴게소 일원에서 교류 화합행사를 개최했다.

1989년 7월 함양군 서상면장의 친선 교류 제의로 시작된 장계-서상 간 친선 교류는 1990년 친선 교류에 동의하는 장계면장의 편지로 불포가 트여 1990년 6월 16일 장계면에서 자매결연식을 맺고 장계면과 서상면에서 각각 제1회, 2회 친선체육대회를 개최하며 본격 시작했다.

매년 2회 추진되던 친선교류 행사는 1995년 이후 격년제로 장계면과 서상면에서 번갈아 추진되고 있으며, 올해는 장계면 주최로 개최됐다.

이날 김진철 서상면장과 서상면 사회단체장 및 직원 등 100여 명은 26일 장계면 육십령휴게소를 방문해 장계면민과 서상면민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제40회 동서화합 한마당 행사'에 참석해 축제를 함께 즐기고 '새롭게 도약하는 행복 장수'를 응원했다.

이날 행사는 기념식, 친선경기, 노래자랑 및 화합한마당 공연 순으로 진행됐으며, 추운 날씨에도 300여 명이 넘는 장계면민과 서상면민의 참석으로 상호 우호관계를 돈독히 다지는 시간이 됐다.



특히 이번 행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새마을부녀회, 생활개선회, 의용소방대 등 다양한 장계사회단체가 함께하며 자매결연지 간 우애를 다졌다.

김진철 서상면장은 "이런 뜻깊은 자리에 초청해주셔서 감사하다"며 "1990년부터 지금까지 쌓아온 교류 행사를 통해 서로의 우정이 더욱 깊어지고 상호간에 유익한 시간이 이어지길 염원한다"고 말했다.

신용수 장계면장은 "형제 도시 함양군 서상면 가족들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찾은 만남과 소통으로 앞으로 장계와 서상 간 공동 발전을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장수=고광호 기자



무주소방서, 화목보일러 화재 주의 당부

무주소방서는 다가오는 겨울철을 맞이하여 화목보일러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전북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화목보일러 화재는 총 149건이 발생하였고 특히, 2022년은 전년(2021년) 대비 9건이 증가하는 등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무주소방서는 지난 25일 안전면 이장단을 찾아 △화목보일러 화재 주요 원인 △설치기준 △안전조치 및 주의사항 등이 안내된 화목보일러 안전사용하기 라는 팸플릿 제공 등 홍보활동을 펼쳤다. /무주=전문선 기자

순창소방서, "응급처치 하임리히법 알아두세요"

순창소방서(서장 박덕규)는 목 막힘 사고 발생 시 적절한 응급처치법인 '하임리히법'을 꼭 알아야 한다고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우리가 즐겨 먹는 음식인 떡, 사탕 등으로 인한 기도폐쇄 안전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음식을 먹다가 청색증이나 호흡곤란과 함께 자신의 목을 움켜쥐는 등의 기도폐쇄 증상이 나타난다면 환자가 기침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자발적으로 기침을 할 수 없다면 119신고 후 '하임리히법'을 실시해야 한다.

환자를 뒤에서 감싸듯 안고 한 손은 주먹을 쥐고 다른 한 손은 주먹 권 손을 감싼 뒤 명치 끝과 배꼽 사이에 대고 뒤쪽 위로 강하게 밀쳐 올리며 음식물이 나올 때까지 반복해야 하며, 만약 환자가 의식을 잃었다면 바로 심폐소생술을 해야 한다. /순창=이왕원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6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대표전화 288-9700 ·업무국 FAX 288-9703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645-4113	중앙지사 010-9088-6874	남원지사 632-3996	임실지사 010-9642-2725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5-1227	진안지사 433-3064
서신지사 272-9417	송천지사 256-2404	남원지사 632-0985	정읍지사 536-3767
호지지사 010-8645-9935	팔복지사 253-6844	순창지사 663-0444	장수지사 010-3882-6157
	교산지사 010-6789-0038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익산지사 868-9823	고창지사 563-6999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

